

오피니언 리더



방 중 현
광주동명교회 원로장로

누구든지 왕이 된 후에 왕이 꿈을 꾸고 마음이 번민하였다.
중요한 내용이 담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기억하지 못한 것이다.
박수와 슬픔과 잠잠이와 갈대아 술사들을 불러 왕이 꿈 꾸는 것을 기억하게 하고 그 꿈을 해석하라는 명령이다.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왕을 쫓을 것이요 너희의 집을 가를 것이요 만일 꿈을 꾸고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왕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러면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였다.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슬픔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들은 자가 없었나이다.

두 신상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다 하였다.

왕이 이르 말미암아 진노하고 분노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체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였다. 왕의 명령이 내리매 지체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하였다. 이리하여 다니엘은 명령을 알았고, 다니엘이 불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 드리리이다 약속하였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나와 미사엘과 아사리엘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체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였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며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이에 이리하여 다니엘을 데리고 갈대아 왕 앞에 들어가서 이르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 드리리이다 하였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바 은밀한 것은 지체자나 슬픔이나 박수나 잠잠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므로,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시라.

그가 누구든지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소서.

게 하소서. 왕의 꿈 곧 왕이 잠에서 머리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았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실려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로는 놋이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열마는 쇠요 열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 즉 순대지 아니한 불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우상을 친 불은 태신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하니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왕은 곧 그 금 머리나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넷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은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게 가 되리라. 그 나라가 넷 나라를 부서뜨리고 왕을 쫓을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치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니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시리라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다고 하였다. 이에 누구든지 왕이 이르러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였다.

그 후에 다니엘 3장에는 누구든지 왕이 꿈에 본 신상이 아닌,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불이 그 신상을 굶뜨고, 네비는 여섯 굶뜨고,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다.

왜 그는 이 신상을 세웠을까? 그가 세운 바벨론은 온 세계에 비추는 빛처럼 강대했고, 왕은 지금 내가 세운 이 나라는 금 신상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바벨론의 이름으로 인류역사의 끝까지 가도록 해야 한다는 누구든지 왕의 의지가 표현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 간다.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에 재림과 최후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건강칼럼

사양(飼養)벌꿀과 천연벌꿀 이야기

꽃에서 직접 얻은 천연 꿀벌의 벌꿀과 달리, 밀원(蜜源)으로 꿀벌이 아닌 설탕물이나 물엿을 벌에게 먹여 얻은 꿀을 '사양(飼養) 벌꿀'이라고 한다. 물론 이것은 당분비율만 맛중 가지 않는다는 뜻이다. 본래 사양(飼養)이라는 의미는 벌을 사육(飼育)한다는 데서 나온 말이다. 우리나라에서 특히 겨울철에는 꽃이 피지 않아 벌의 먹이가 없기 때문에 벌의 생존을 위해 설탕물을 공급해야 하는 사육의 한 방법이다. 생산비용이 저렴하고 생산량도 많기에 시중에 많이 유통되고 있는데, 벌꿀제품의 과반수가 사양 꿀로 알려져 있다.

'사양'은 당분의 원료가 꿀벌이 아닌 단순한 설탕물이라는 것이지만, 이것 역시 꿀벌을 통해 천연꿀과 같이 과당과 포도당으로 분해된다. 사실 사양꿀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완전 사양꿀이고 다른 하나는 부분 사양꿀이다. 완전 사양꿀은 꿀벌에게 설탕이나 시럽만을 먹여 생산된 꿀이고, 부분 사양꿀은 꽃가루가 부족한 시기에 설탕이나 시럽을 보충하여 생산된다. 그래서 꿀벌 성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그 비율이 낮다. 꿀벌로 인한 천연벌꿀은 꽃에서 유래된 꽃가루와 비타민류나 무기질이 미량 함유되어 있는 천연물이지만, '사양'은 그러한 성분이 없거나(완전 사양꿀) 중량치 낮기 때문에 (부분 사양꿀) 당연히 꿀의 품질이 떨어진다. 단순한 영양학적 측면만 고려한다면, 맛과 풍미 외에 사양꿀은 천연 벌꿀과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영양적인 측면만 아니라, 사양꿀은 천연꿀의 독특한 향이나 천연 생리활성 성분이 별로 없기에, 항생, 항균 등 효과를 주기 어렵다.

사양꿀이 비록 천연형태의 꿀벌이나 꽃가루의 밀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가짜 벌꿀이라고 말할 수 없다. 가짜 벌꿀은 옥수수 시럽이나 물엿으로 벌꿀처럼 만들거나, 진짜 벌꿀에 시럽, 설탕을 넣어 만들기 때문이다. 사실 양봉 전문가라 할지라도, 점성, 농도, 향미만으로 사양꿀, 천연벌꿀 또는 이들을 혼합한 꿀인지를 구별하기 어렵다. 오직 전문 질량분석기기를 이용한

탄소동위원소 비율 분석으로만 가능하다. 탄소동위원소 비율 측정치는 물리적, 화학적 변화에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기기 분석방법이 유일하게 진짜 천연 벌꿀의 판별 및 순도까지 알 수 있다.

천연벌꿀은 탄소동위원소 비율 분석값(δ13C) 기준으로 -22 ~ -25 퍼밀(per mille, ‰) 값을 보인다. 그러나, 사양꿀 또는 천연/사양 벌꿀을 섞은 혼합꿀의 경우, -12 ~ -20 퍼밀 값을 보여 천연벌꿀 값과 다르다. 100% 천연벌꿀을 생산해서 시판하는 경우, 진짜 천연벌꿀이라는 증거로 과학적으로 분석된 탄소동위원소 비율 수치를 제품라벨에 표기하고 있다. 순수 사양꿀, 천연벌꿀 그리고 이들 혼합꿀의 탄소동위원소 비율 수치는 다음과 같다. 물론, 사양꿀 제품에는 식품유형에 반드시 (사양벌꿀)이라고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상업적인 측면이 갈수록 심해지는 시대이기에,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안목과 정보가 더욱 중요하다.

* 100% 천연벌꿀: -22 ~ -25 퍼밀
* 50% 천연/사양 혼합벌꿀: -18 퍼밀
* 100% 사양벌꿀: -12 ~ -15 퍼밀 * 설탕: -11 퍼밀



이원 재 곽

- 서울대 KAST 졸업
- KST 연구원으로 근무
-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UIC) 박사학위 취득
- 충대대에서 박사후 연구원
- LG화학기술연구소 연구원 근무
- 전) 조선대학교 약학대학 명예교수
- 약학대학 학장과 임상약학대학원장 역임

선교칼럼 105



장찬익 선교사
이탈레교회 대표
광주중앙교회 협동목사
저서, 이슬람교의 몰락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지난 2월 28일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중립협상이 6월 14일에 발표되었고 6월 19일에 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7월 4일에는 미국이 250주년 독립기념일로 지냈습니다. 반면에 같은 날에 이란에서는

최고지도자 하메네이의 장례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반감이었는지 이란의 혁명수비대는 7월 7일에 MOU를 파기하고 요르단에 있는 미군 부대를 미사일로 공격하여 미군 2명이 사망하였고 1명이 실종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은 곧장 응징을 시작하였고 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서로 중립협상은 이제 끝났다고 선포하고 더 격렬하게 폭관부하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다시 재개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 전쟁은 어떻게 될까요?

미국은 그동안 이란의 핵 무기를 협상을 줄달리기 해 왔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핵 무기를 협상은 타결되지 않았

고 오히려 중국의 안보위성의 도움으로 이슬람혁명수비대는 중동에 있는 미군부대의 위치를 확인한 다음 미사일로 반격을 시도했고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여 세계의 유가를 위협에 빠뜨리면서 상선을 공격하여 해협을 장악하고 있다는 건재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MOU 휴전협정을 파기하면서 카타르와 사

우디아라비아와 요르단의 미군부대를 공격하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슬람혁명수비대가 그동안 해 온 것으로 보아 이슬람혁명수비대는 이제 하든지 핵 무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항전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미국은 이번에 다시 시작된 전쟁의 목표를 이란의 이슬람정권을 끝내고 정치체제를 바꾸기로 하였습니다.

다. 앞으로 기간은 미지수이지만 전쟁의 방향은 현재 이란의 이슬람 정권을 끝내고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로 바꾸려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상황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란의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서, 첫째, 가능한한 사람이 죽지

않도록, 둘째, 이란에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안전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셋째, 이란의 무슬림 영혼들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신학 신입(편입)생 모집(주·야간)

시대를 선도하는 보수신학의 전당 062)266-0153 <http://gsccc.or.kr>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본인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개혁신학 총회장 정서영 목사입니다. 합동개혁신학은 청교도 개혁 신학의 요람으로 사명자들에게 철저한 보수적 신앙체계로 교육하여 확실하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본인이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여러가지 여건 등으로 망설이고 있습니까?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상담에 응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총회 신학은 년중 계속 수업을 실시하므로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총회장 정서영 목사



최고의 교수진
신학과 목회연결

모집안내 신학과 목회를 연결하는 프로그램 운영

과정별	모집학과	모집정원	응시자격
신학부 (졸업후 전도사 사역)	신학과(주,야)	00명	남·여 세례받은 자
	목회학과(주,야)	00명	남·여 세례받은 자 평신도, 장로, 사명자 특별전형
신학연구원 (졸업후 목사 안수)	주·야간반	00명	신학부 졸업자 및 동등학력 소지자 모든 수업은 광주총신에서 하며 졸업 후 모든 학적권리는 본교인 서울 남현동 총신에서 주관함.
학술원	목회학과	00명	본 신학연구원 졸업자

원서교부 및 접수

1. 원서교부: 총회신학 광주캠퍼스
2. 원서접수: 수시접수(062-266-0153)
3. 전형방법: 서류전형, 면접(전형료 없음)

교수님을 모십니다

- 지원자격: 전공분야 및 박사학위 소지자
- 모집인원: 0명

광주총신 특별사항

- 신 학 부: 4년 8학기 또는 2년 8학기 (1년 4학기 제 수업)
- 신학연구원: 2년 4학기 또는 1년 4학기 (1년 4학기제 수업)
- 시간표 홈페이지 참조(<http://gsccc.or.kr>)
- 주 야 간 반: 매주 월/화 (주간: 오전 10시, 야간: 오후 6시)
- 주 말 반: 매주 토요일
- 남·여 목사안수 / 각종 장학혜택: 부부학생특혜
- 최고의 교수진 / 설교전문가 / 실전목회자 양성
- 교회 개척, 설립인허, 법인등록 등 각종 행정지원
- 한교연, 한기총, 한장연, 세기총 가입 교단



시대를 선도하는 보수신학의 전당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신학**
광주총회신학 연구원장: 임강원 목사

토요반 수시등록 접수중

광주광역시 각화동 476-1번지 062)266-0153

총회신학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서 교단 내 지도자양성을 위해 인준한신학교육기관입니다.